

# 고령·여성 농업인 '넘어짐 사고' 가장 많아

농업인의 농업활동 중 고령과 여성 일수록 업무상 손상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업 활동과 관련된 농업인의 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19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는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7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농촌지역 표본가구 1만 20곳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업인의 2.7%가 1년 동안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

## 농진청 2019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

### 농업기계 관련 손상, 전체 업무상 손상의 31%

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발생 유형으로는 넘어짐 사고가 40.8%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힘이나 동작으로 인한 신체 반응 13.7%, 승용 농기계 단독 운전사고 1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27.3%)보다 여성(56.3%)의 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나이별로는 50세 미만은 0.2%, 50대 1.6%, 60대 3.0%, 70세 이상 3.7%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고로 인한 손상 발생률도 높았다. 손상 발생 장소는 밭(39.0%)이 가장 많았고, 논 15.7%, 농로 12.1%, 시설

7.8%, 과수원 7.0% 순으로 조사됐다. 손상 발생 상황은 농작업 중 60.9%, 농작업 관련 이동 중 15.3%, 농작업 후 정리 중 10.1%, 농작업 준비 중 7.9% 순으로 파악됐다.

농업기계와 관련된 손상은 전체 업무상 손상의 31.0%를 차지했다. 이중 경운기 사고에 의한 손상이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트랙터 19.1%, 관리기 6.7%, 트럭(화물차) 6.4%, 예취기 6.0%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앞으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업무상 손상으로 가장 문제시 되는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동영상과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농업인안전 365(http://farmer.rda.go.kr)'에서도 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작업과 관련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민국 공간정보표준을 선도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제2기 공간정보표준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출범한다. 사진은 LX 전경.

## 디지털트윈 데이터 표준화 나서

### LX, 신기술 표준개발 위해 기술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공간정보표준을 선도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제2기 공간정보표준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출범한다.

LX는 제1기 기술위원회의 임기가 7월로 종료됨에 따라 공간정보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제2기 기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에 따른 디지털트윈 등의 신산업 표준 기반 마련과 안전한 국토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3D구축 관련 표준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LX는 국토부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받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공간정보표준 기술위원회를 출범해 작년 12월까지 국가표준 18종 제정, 12종 개정 검토 등 표준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최근 데이터 산업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에 따라 LX가 국내 디지털트윈 등의 핵심기술이 국제화 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의 표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남원농협, NH생보

### 연도대상 수상

#### 사무소 부문... 개인도 우수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이 지난 28일 농업인 조합원의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보험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 받아 '제32회 NH농협생명보험 사무소 부문 연도대상'을 수상했다.

또, 남원농협은 개인부문에서도 김성경(보절지점) 과장대리가 개인 수상(신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NH농협생명보험에서는 매년 우수사무소와 우수한 직원들을 연도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후 NH농협생명보험 전북총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에서 연도대상 수상자가 나와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농촌경제 환경에서도 농업인 실익을 위한 보장자산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이 지난 28일 농업인 조합원의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보험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 받아 제32회 NH농협생명보험 사무소 부문 연도대상을 수상했다.

## 6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752조2000억원

### 전년대비 15조5000억원 ↑... 코로나19 위기 불구 양의 수익률 달성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직전년도 대비 15조5,000억원 증가해 752조2,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상반기 운용수익률은 0.50%(잠정)로 코로나19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20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 우려로 사상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한때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분산투자와 위험 관리에 힘입어 6월말 현재 수익률은 양으로 회복됐다.

국가·지역 간 이동이 제한돼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팬데믹 선연과 유가급락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은 3월 중 연초대비 3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

연금의 수익률도 악화돼 지난 1분기 잠정 -6.08%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 국가의 부양책 및 통화 완화 정책으로 국내외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영향을 받아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 0.50%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41%, 해외주식 -3.46%, 국내채권 2.13%, 해외채권 7.90%, 대체투자 4.24%를 기록했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연초 급락했으나 글로벌 주요 국가의 부양책 및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의 전년대비 상승은 해외주식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국내 및 글

로벌 주요 국가가 경기부양 및 선제적인 위기 대응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며 금리가 하락했다. 그 결과 평가이익이 증가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화 환산이익 또한 증가하며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국내 및 해외 대체투자자산의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배당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 환산이익으로 인한 것이며, 연도 말 기준 연 1회 공정가치 평가를 하므로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설립 이후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5.30%, 누적 수익액은 총 371.2조 원으로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시계를 갖고 기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은, '외국인 전용 지머니 트랜스 제휴 체크카드'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8일부터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 업체인 지머니트랜스(주)와 외국인 전용 제휴 체크카드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머니트랜스(주)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저렴한 해외 송금수수료로 간편한 모바일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지머니트랜스 체크카드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체류자격 E-9)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본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비대면 영상통화를 통한 '무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 회원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지머니트랜스 모바일 앱에서 카드신청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전북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편의점, 온라인, 카페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 2%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시백서비스는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월 최대 5,000원 한도로 제공된다. 또한 티머니 선불교통카드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전건협 전북도회, 수해복구공사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사진)는 전북도와 도내 16개 시·군에 이번 장마와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에 해당 지역전문건설업체의 다수 참여를 건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먼저 전북도회는 유래없는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재방이 붕괴되고 각종 시설물 및 건축

물이 침수되거나 수해로 인해 붕괴 및 파손되는 피해상황이 도내 곳곳에 발생해 즉각적 조치와 복구작업이 필요함을 전하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익계약 대상 확대(전문공사 1억원~2억원 미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 적용)를 적극 활용해 다수의 지역전문건설업체가 복구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 입찰 시 해당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올바른 전문건설

업종으로의 발주도 건의했다.

더불어 전북도회는 수해로 인한 지역 회원업체의 피해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군 지역운영위원회 및 업종운영위원회에 해당 지자체의 수해복구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도내 2,700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 그리고 지역건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